예배교회

2026년 10월 18일 · 일요일 · 제26-42호

주일오전 11시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

시편 116: 9-15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ORDER OF WORSHIP

예배 순서



>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01	**찬양**		이정호 집사
02	**기도**		감사와 회개
03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04	**성경봉독**	시편 116: 9-15	다함께
05	**말씀**	내가 주님께 드릴 말씀은 …	김문종 목사
06	**결단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다함께
07	**기도**		순종과 결단
08	**광고**		인도자
09	**축복송**	너희 가는 길에	다함께
10	**축도**		김문종 목사
11	**식사교제**		다함께

알립니다

예배교회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RD & REFLECTION

감사



조지 허버트

제게 이토록 많은 것을 주신 주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주님 이 거지가 어떻게 꾀를 내어 간청하는지요.

주님께 받은 선물을 빌미로 더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금껏 받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나 처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무엇까지 감당해야 할지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님의 맑은 방들을 얼룩지게 하는 눈물,
선물을 받고도 더 달라며 다시 찾아오는 발걸음까지도.

그런데도 주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우리의 그 모든 소원을 받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한숨과 신음마저
주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신음보다
훨씬 아름다운 노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소박한 가락을
기꺼이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가만히 쉬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내킬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하소서.
마치 주님의 은혜가 쉬는 날이 없는 것처럼.
제 마음의 고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소서.

NEWS & ANNOUNCEMENTS

교회 소식



0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2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그로우젠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요

한영혼 품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